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2, pp.213-248
<https://doi.org/10.29212/mh.2024..132.21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임진강유역 신라 성곽의 축성변화 고찰

권순진 | 수도문물연구원

- 목 차
1. 머리말
 2. 임진강유역 신라 성곽의 분포양상
 3. 북진기 신라 성곽의 축조
 4. 통일전쟁기~나당전쟁기 신라 성곽의 변화
 5. 맺음말

초 목 6세기 중반 임진강 이북으로 진출한 신라는 고구려 성곽에 대응되는 지점에 성을 쌓고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먼저 당시 초축된 성은 임진강과 한탄강을 연하는 횡적 방어선상에 있는 감악산보루, 수철성, 초성리산성, 고소성, 주원리산성, 한탄강 상류에 위치한 철원 지역의 할미산성, 내대리성지, 어음성 등이다.

이 성들은 6세기 중반 이후 신라유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와가 출토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성곽의 규모도 소형이며, 입보농성을 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점령지의 안정적인 지배보다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순수 전투 목적을 가지고 축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두산성, 칠중성, 옥녀봉산성, 군자산성, 대전리산성, 성동리산성, 반월산성, 동주산성, 성산성 등 임진강유역의 중대형 산성들은 임진강유역이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에 신축 및 증·개축되어 고구려, 당과의 전투에 활용되었다. 또한 이러한 성들은 지방통치의 거점인 군현성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이외에 오두산성을 비롯하여 덕진산성, 호로그루성, 당포성, 은대리성 등은 임진강 연안에 연접하여 있어 대고구려 및 나당전쟁시 임진강 수로를 통제함과 동시에 방어기능 및 보급거점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임진강, 전투전초, 군현성, 치소성, 전곡리토성

(원고투고일 : 2024. 7. 10, 심사수정일 : 2024. 8. 17, 게재확정일 : 2024. 9. 7.)

1. 머리말

한반도 중앙부에 해당되는 임진강¹⁾ 유역은 고대 삼국 세력이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곳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용암대지 위에 형성된 15~20m에 달하는 거대한 천연장벽으로 인해 천혜의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하였으며,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우리 역사상의 갈등기마다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임진강이 셋강과 만나는 곳에는 여울목이 형성되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교통로가 이어져 있다.²⁾ 이러한 교통로만 방어하면 적의 침략³⁾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으므로 여울목이나 나루터 인근에 성곽이 축조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모든 시기에 걸쳐서 다양한 축조기술이 혼재된 한국 관방유적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임진강유역 신라 성곽에 대한 연구⁴⁾는 크게 문헌기록을 토대

-
- 1) 임진강의 길이는 254km이고 유역 면적은 8,118km²로서 북한에서 9번째로 넓은 유역 면적을 갖고 있으며, 한강의 제1지류이다. 전체 유역 면적 중 남한 지역이 약 3,008km², 북한지역이 5,108.8km²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 북부를 흐르면서 古味呑川과 平安川을 합류하고, 경기도 연천에서 철원·평강 등을 흘러온 한탄강과 합류한다. 고랑포를 지나 문산 일대의 저평지를 흐르는 문산천과 합치고 하구에서 한강과 합류하여 서해로 흘러든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ks.ac.kr).
 - 2) 김종희, 「연천군의 역사지리」,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66쪽.
 - 3) 병자호란 당시에도 청의 기병을 막으려면 ‘천연의 垓子’인 임진강 여울과 나루터를 지키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긴요한 방어책이라는 견해가 조정에서 거론된 것도 이와 같은 임진강의 지형적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2월 8일 을사).
 - 4) 신라가 축조, 사용한 성의 유지가 더 정확한 표현이나 성의 초축 주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전에 축조된 성을 신라가 중요하게 사용한 사례가

로 분포양상, 축성기법, 출토유물 등을 통한 성곽의 성격 연구⁵⁾와 축성 위치와 축성 규모 및 성 내부에서 출토된 ‘행정관련 유물 및 유구’의 분석을 통해 성곽의 군사·행정적 기능변화와 위계를 밝힌 연구,⁶⁾ 개별 성곽의 조사결과에 따른 성격 연구⁷⁾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임진강과 한탄강유역의 삼국시대 국경 변천과 그에 따른 관방유적의 성격을 시기별로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하천을 중심으로 성곽 위치가 남쪽인지, 북쪽인지, 주요 교통로상 요충지인지, 촌락과 인접한지에 따라 성격이 달랐을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성곽의 규모가 소형인지, 중·대형인지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달랐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임진강유역은 백제-고구려-신라로 점유세력이 바뀌면서 그에 따른 삼국의 축성술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곳이다. 따라서 해당국가가 점유하면 그 국가 고유의 축성술이 수·개축 과정에서 접목되었을 것이다.⁸⁾

종종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라가 사용한 성을 신라 성곽으로 통칭한다.

- 5) 인하대학교박물관, 『임진강유역의 고대사회』, 인하대학교 박물관 제3회 학술대회, 2002; 심광주, 「신라 성곽」, 『경기도의 성곽』, 경기문화재단, 2003; 권순진, 「경기 지역 신라 ‘북진기성곽’에 관한 일고찰」, 『신라사학보』 9, 2009; 서영일, 「산성 분포로 본 신라의 한강유역 방어체계」, 『고고학』 9권 1호, 2010; 권순진, 「임진강유역 고구려성의 성격 재고 -호로고루·당포성·은대리성을 중심으로-」, 『군사』 83, 2012; 「철원지역 신라산성의 성격」, 『군사연구』 135, 2013; 서영일,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덕진산성」, 『백제문화』 55, 2017; 심광주, 「임진강유역 삼국의 관방체계」, 『임진강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경기문화재단연구원·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2018; 백종오, 「임진강-한탄강유역 고대 관방체계와 하천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25권 2호, 2022; 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권순진, 「철원지역 성곽의 특징과 성격」, 『인문과학연구』 75, 2022.
- 6) 박성현, 「6~8세기 신라 한구 「군현성」과 성격」, 『한국사론』 47, 2002; 이상현, 「한구 신라성의 考고학적 특징」,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7) 서승완, 「파주 덕진산성의 축성법과 점유세력의 변화」,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안성현, 「연천 대전리산성 성격 연구」, 『문물연구』, 38, 2018; 김덕원, 「칠중성의 영유권 변천과 전략적 역할」,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 파주사·역사문화재단 연구원, 「파주 덕진산성의 과거·현재·미래」, 파주 덕진산성 학술대회, 2021; 「파주 칠중성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학술대회, 2023.

이 중에서 삼국시대 이 지역을 가장 마지막으로 점유한 국가가 신라이기 때문에 신라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임진강유역 일원에 분포하는 신라 성곽 가운데 입지와 규모에 따른 분포양상이 축성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⁹⁾ 특히 임진강유역을 마지막으로 점유한 나라가 신라였던 관계로 백제와 고구려와 비교할 때 보다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임진강 유역에 분포하는 신라 성곽을 중심으로 분포양상을 파악 후 입지와 규모에 따른 성곽의 활용 양상 및 변천 과정을 시론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시기는 신라가 한강유역 및 임진강유역으로 진출하는 6세기 중-후반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였던 북진기¹⁰⁾부터 나당전쟁기인 7세기대까지 운영된 성곽들에 대해 문헌기록과 고고자료를 반영하여 크게 신라 북진기, 통일전쟁기, 나당전쟁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만 삼국통일 이후 나당전쟁으로 연결되고 출토 유물 등의 시간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통일전쟁기와 나당전쟁기는 묶어서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검토는 임진강유역 신라 성곽의 성격을 규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임진강유역 신라 성곽에 대한 연구는 기초자료인 발굴조사 자료가 여전히 부족함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8) 성곽은 특성상 점령자에 의해 수리되어 재사용되거나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증개축, 보수되어 사용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비로써 성곽 유구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유재춘, 『한국 중세 성곽의 城壁 설치 방어시설물 연구 -고려시대 城廊, 城頭, 遮城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62, 2019, 189~216쪽).

9) 임진강 유역에서 확인되는 백제, 고구려, 신라 성곽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축성 주체와 축성 시기에 따라 임진강 유역이 어떻게 경영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심광주, 앞의 논문, 2018).

10) 권순진, 앞의 논문, 2009.

2. 임진강유역 신라 성곽의 분포양상

임진강을 접하고 있는 시군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군이 포함된다.¹¹⁾ 이곳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듯이 삼국시대 관방유적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서쪽 파주부터 북동쪽에 위치한 철원지역까지 신라유물이 출토되는 성곽을 정리하면 임진강 하류의 오두산성¹²⁾을 비롯하여 고봉산성,¹³⁾ 봉서산성¹⁴⁾, 덕진산성,¹⁵⁾ 이잔미성¹⁶⁾, 호로고루,¹⁷⁾ 당포성,¹⁸⁾ 칠중성¹⁹⁾, 옥녀봉산성²⁰⁾, 군사산성²¹⁾, 전곡리토성,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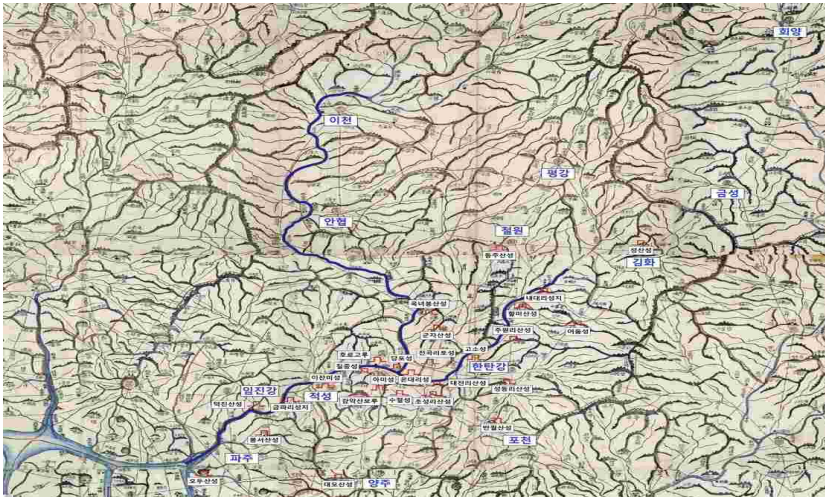
-
- 11) 임진강 본류와 지류천을 따라 신라 성곽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에 임진강 지류천인 한탄강을 포함하여 차탄천, 하류에 해당되는 사미천, 문산천, 공릉천 등 비교적 규모가 있는 하천 인근에 인접한 관방유적까지 포함하여 검토한다.
 - 12) 황용훈·신복순·김희찬, 『오두산성』 I, 경희대학교 고고미술사연구소, 1992; (재)한백문화재연구원, 『파주 오두산성 정밀지표조사』, 2006;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오두산성 동벽 유구조사』, 2007; (재)가디언문화유산연구원, 『파주 오두산성 학술발굴조사 용역 약식보고서』, 2022.
 - 13)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경기도 파주군 군사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4; 가디언문화유산연구원, 『고양 고봉산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2022.
 - 14)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 15)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경기도편-, 2000;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한양대학교박물관·문화인류학과,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파주 덕진산성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보고서』, 2004; 중부고고학연구소, 『파주 덕진산성 -1·2차 학술발굴조사』, 2014.
 - 16)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경기도박물관, 『고구려 유적의 보고-경기도-』, 2005.
 - 17)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 호로고루』 -정밀지표조사보고서-, 1999; 『연천 호로고루』 -제1차 발굴조사보고서-, 2002; 『연천 호로고루』 III -제2차 발굴조사보고서-, 2007; 『연천 호로고루』 IV -3·4차 발굴조사보고서, 2015; (재)한울문화재연구원, 『연천 호로고루 동벽 남측 치성 -연천 호로고루 동벽 남측 치성 발굴조사』, 2018.

대전리산성²³⁾, 성동리산성²⁴⁾, 반월산성,²⁵⁾ 철원 동주산성²⁶⁾, 성재산성²⁷⁾ 같은 둘레 1km 내외의 중대형산성을 비롯하여 감악산보루²⁸⁾, 아미성, 수철성²⁹⁾, 초성리산성³⁰⁾, 고소성³¹⁾, 주원리산성³²⁾, 포천 할미산성³³⁾, 철원 내대리성지³⁴⁾, 어음성³⁵⁾ 등 둘레

-
- 1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앞의 책, 2000;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2006;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경기도박물관, 『연천 당포성-시굴조사보고서-』, 2008.
 - 19)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파주 칠중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 2001; (재)경강문화재연구원, 『파주 칠중성』-정밀지표조사보고서-, 2022.
 - 20)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경기도 연천군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95.
 - 21)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5.
 - 22)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유적』, 2006; 경기문화재단·한양대학교문화재연구소, 『연천 전곡리성』, 2010.
 - 23)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5;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고구려성곽(3개소)발굴 및 정밀지표조사 약보고」, 2010; 경기문화재연구원·연천군, 『연천 대전리산성』 I -시발굴조사 보고서-, 2015; 고려문화재연구원·연천군, 『연천 대전리산성』 II, 2016.
 - 24)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경기도 포천군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97; 경기도박물관, 『포천 성동리 마을유적』, 1998.
 - 25)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종합 보고서』 I · II 2004.
 - 26)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강원도 철원군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96; 국위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강원도편-, 2000; 육군사관학교 국방유적연구소·철원군, 『철원 동주산성 지표조사보고서』, 2005; 이재강성문·권순진, 『철원의 성곽과 봉수』, 2006; 차재동, 「철원 동주산성에 대한 고찰」, 『강원인문논총』 15, 2006.
 - 27)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6; 육군사관학교·철원군, 『철원 성산성 지표조사보고서』, 2000;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이재강성문·권순진, 앞의 책, 2006.
 - 28) 한양대학교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2001.
 - 29) 경기도박물관, 『아미성·수철성』-정밀학술조사보고서-, 2008.
 - 30)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5.
 - 31)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7.
 - 32)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5; 단국대학교 사학과,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 33) 단국대학교 사학과, 앞의 책, 1999; 이재강성문·권순진, 앞의 책, 2006.
 - 34)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의 성곽과 봉수』, 2019.

약 300m 내외 소규모 보루급 유적들이 자리한다. 모두 임진강 본류와 이 본류로 흘러드는 지류천에 인접하여 자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발굴조사된 된 성곽은 대전리산성을 포함하여 7개소이며, 나머지는 모두 지표조사만 실시된 유적이다.³⁶⁾ 현재까지 임진강유역에서 조사된 신라 관방유적 현황³⁷⁾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그림 1> 임진강유역 신라 성곽 분포도(대동여지도)



35) 이재 · 강성문 · 권순진, 앞의 책, 2006; 강원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9.
 36) 이밖에 파평산보루, 노고산보루, 무건리보루, 금파리성지, 초성리토성 등이 있으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평지에 위치한 관계로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37) 임진강유역의 신라 관방유적은 신라 북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임진강유역까지 진출한 신라는 북동쪽의 추가령구조곡을 지나 함경남도의 황초령과 마운령까지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철원지역을 반드시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곳도 포함하였다.

〈표 1〉 임진강유역 신라 성곽 조사현황(■; 발굴조사)

구 분	유적명	위 치	해발(m)	둘레(m)	축조 재료
파주	오두산성	탄현면 성동리	109	내성: 약 1,281, 외성: 약 610.1	석
	봉서산성	파주읍 봉서리	214	약 1km	석
	덕진산성	군내면 정자리	85	내성: 약 600, 외성: 약 1,200	석
	금파리성지	파평면 금파리	16	약 190	토
	이잔마성	적성면 장좌리	40	약 306?	석
	칠중성	적성면 구읍리	147	약 603	석
	아미성	적성면 적암리	265	290	석
감약산보루	적성면 설마리	658	약 116	석	
고양	고봉산성	일산동구 중산동, 성석동	208.8	내성: 약 360, 외성: ?	석
연천	호로고루	장남면 원당리	20	401	토/석
	당포성	미산면 동아리	20	450	석
	은대리성	전곡읍 은대리	50	1,005	토/석
	대전리산성	청산면 대전리·장탄리	136.8	681	석
	전곡리토성	연천읍 전곡리	60	2,569m	토
	수철성	전곡읍 양원리	397	약 173	석
	옥녀봉산성	군남면 옥계리	126	약 702	석
	군자산성	연천읍 차탄리	328	약 600	석
	초성리산성	연천읍 초성리	140	약 164	석
포천	성동리산성	영중면 성동리	160	약 401.9	석
	할미산성	관인면 냉정리	205	약 250	석
	고소성	창수면 고소성리	130	약 440	석
	주원리산성	창수면 주원리	102	약 87	석
	반월산성	군내면 구읍리	284	1,080	석
철원	성산성	김화읍 읍내리	430	982	석
	동주산성	철원읍 중리	360	591	석
	내대리성지	갈말읍 내대리	150	약 370	석
	어음성	갈말읍 문혜4리	361	400	석

3. 북진기 신라 성곽의 축조

신라가 한강유역과 임진강유역으로 진출한 것은 6세기 중후반이었으며, 신라의 진출로 인해 한반도 중부지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즉, 551년 신라는 죽령 이북 고현이내 10군을, 백제는 한강유역 6군을³⁸⁾ 확보하였다. 이후 553년 신라는 백제가 확보한 한강유역 6군을 공격하여 차지하고 신주를 설치하였다.³⁹⁾ 이후 함경도까지 진출하여 556년 안변에 비열홀주를 설치⁴⁰⁾하였고, 568년에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를 건립하였다. 이 당시 신라의 최전방은 임진강유역으로 추정되며,⁴¹⁾ 이는 『三國史記』 칠중성 관련 기록과 임진강 북안의 고구려유적과 남안의 신라유적의 분포로 볼 때 이들 성곽을 중심으로 대·소규모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구려는 신라 북진에 따른 임진강유역의 지형적 잇점을 최대한 이용한 강력한 방어를 전개하여⁴²⁾ 신라가 처음 임진강유역에 진출했을 때에는

38) 신라의 10군과 6군의 위치비정에 대한 연구는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2014, 166~177쪽 참조.

39) 『삼국사기』 권 제4, 신라본기, 三十一年, 秋七月, 新羅取東北鄙, 置新州.

40)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7년.

41) 신라 북진기 서북경계에 대해서 임진강 및 한탄강선과 양주 대모산성 일원으로 나누어져 있다(전덕재,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향토서울』 73, 2009, 109~111쪽 ; 박성현, 『신라의 거점성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55쪽 ; 박성현, 「양주 대모산성의 성격과 역사적 위상」, 『양주 대모산성의 재조명』,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3, 34~42쪽).

42) 6세기 중반 고구려 내부의 상황은 귀족 내분과 서북쪽 국경방면에 출현한 돌궐에 의한 압력 때문에 남쪽 전선인 임진강유역까지 힘을 기울일 겨를이 없었다. 또한 임진강 이남과 이북지역에 구축하였던 성곽들이 대체로 보루 위주의 소규모 군사시설인 관계로 방어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심광주, 앞의 논문,

고구려의 견제가 심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성곽축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접전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규모 성곽을 축조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군사작전을 위한 戰鬪前哨(Combat Outpost)⁴³⁾ 성격의 소규모 성곽축조가 더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최소 인원으로 단기간에 축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성곽은 오두산성(내성), 고봉산성(내성), 감악산보루, 수철성, 아미성, 대전리산성, 초성리산성, 고소성, 주원리산성, 철원지역 할미산성, 내대리성지, 어음성 등이 있다. 이 성곽들은 해발 100~600m에 위치하며, 규모는 대체로 300m 내외의 소형이고, 성 내부에서 장기간 주둔하고 농성하기에는 성내 공간이 협소하다. 또한 대부분 고지 정상부 8~9부 능선에 테를 두르고 있으며, 북쪽 및 동서방향 교통로 및 수로 감시가 용이한 지형에 자리한다.⁴⁴⁾

유물도 신라 북진기 표식적인 유물인 단각고배, 완 등이 출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고배류는 대각이 낮고 대각단부가 말려 올라간 유형이 주를 이루며, 구순이 짧고 뚜껑받이 턱이 강조된

2018, 86쪽). 이러한 연유로 고구려의 주력 방어부대는 임진강 이북 평산, 산계 등에 위치한 중대형 성곽들을 거점으로 남쪽 임진한탄강 등 자연지형을 이용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만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43) 방어시 각 제대별로 운용하는 경계부대 중 전방연대가 설치 운용하는 경계부대로서 적을 조기에 경고, 전투지역에 대한 지상관측 및 사격방지, 능력 범위 내에서 지연 및 와해, 전투지역 위치 기만 등을 할 수 있도록 연대장이 통상 대략적인 배치선, 병력 및 구성을 지정한다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http://dtims.dtaq.re.kr:8070/search/main/index.do#>).

44) 군사적 측면에서 뚜렷한 목표물의 실체를 통한 정보획득에 유리한 거리가 4km 정도임을 감안하면(이판섭, 「삼국시대 산성의 감시반경에 대하여 -삼국시대 산성 배치의 체계성 검토를 위한 예비작업-, 『호서고고학』 15, 2006), 위 성곽들을 포함하여 현재 군부대가 자리하고, 훼손이 심하여 정확한 현상을 알기 어려우나 임진강 연안에 위치한 파평산보루, 노고산 보루, 무건리보루 등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형태이다(그림 2, 3 및 사진 1, 2). 고배류에서 보이는 이러한 특징은 신라후기 양식토기의 이른 시기에 해당되며, 대체로 6세기 중·후반에 해당되는 것이다.⁴⁵⁾ 따라서 임진강유역의 성곽들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6세기 후반 무렵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밖에 임진강 하구에 위치한 오두산성에 인근에서 조사된 성동리고분군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기형을 가진 토기들이 조사되어 이 시기 임진강 하류 일원 또한 신라에 의해 점유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그림 4). 그러나 위계의 상징이자 영역 안정화 이후 각 성곽에서 출토되는 기와가 거의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특히 기와들이 다수 출토되는 신라 근현성 치소에서 벗어나 있어 축조 및 점유 시기가 짧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⁴⁶⁾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 성곽들은 신라가 이 지역을 완전히 점유한 이후에 축조된 것이 아니라 임진강유역에 최초로 진출하면서 축성되어진 것으로 보인다.⁴⁷⁾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종합하면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초까지 임진강유역의 신라유적과 고구려유적의 분포 상황을 볼 때 이 지역은 양국이 충돌하던 지역으로 각국이 영역확장을 위해 치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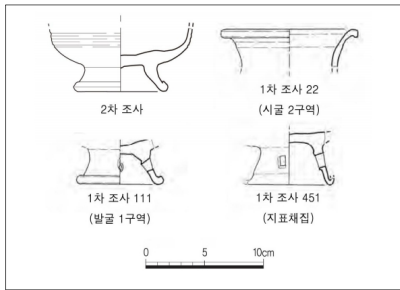
45) 한강 유역과 경기 북부지역 신라 성곽과 고분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은 6세기 3/4분기에 해당한다(홍보식, 「한강유역 신라 석실묘의 수용가 전개」, 『기전고고』 5, 2005, 284쪽). 이 지역 산성들에서 출토되는 토기들은 단각고배와 1단 투창고배, 卜자형 뚜껑, 개신부에 삼각집선문과 원문이 조합된 양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4). 또한 경기 북부지역 신라 산성에서 출토된 철기 역시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김길식, 「6~7세기 경기 북부지역 신라 성곽의 철기 수급체계」, 『백제문화』 54, 2016, 205~247쪽).

46) 박성현, 「신라 「근현성」 과 그 성격 -6~8세기 한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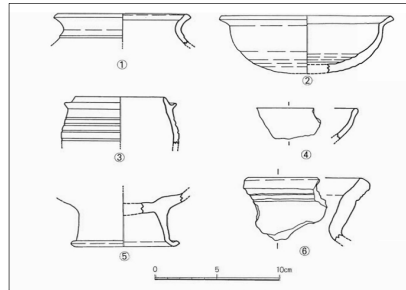
47) 어떤 지역을 점령하였다면, 적의 공격이 있을 때 守城을 하거나 그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기본적인 군사력이 필요하다. 이때 일부 병력은 귀환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주둔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 경우는 신라와 고구려가 소강 및 교착상태로, 교전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 교전이 있더라도 신라와 고구려 모두 기록으로 남길 만큼 승패가 갈린 전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한 전쟁을 수행하던 곳으로, 그만큼 영역 변동이 심했던 곳이다.⁴⁸⁾ 따라서 신라가 대규모 성곽을 신축하기는 어려웠으므로 한강유역을 점유하고 임진강유역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사작전 지역에서의 거점, 부대이동 감시, 제한된 고착 및 지연작전, 보급로 확보, 통신(봉수)⁴⁹⁾의 기능을 위해 소규모 성곽을 축조하였으며, 순수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⁰⁾

〈그림 2〉 대전리산성 출토유물



〈그림 3〉 초성리산성 출토유물



- 48)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지에 “삼국 사이에 땅의 경계가 개의 이빨처럼 엇갈려 때로는 서로 화친하고 때로는 서로 침략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는 임진강유역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된 삼국의 각축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49) 『삼국유사』 권5, 감통7, 용천사해성가 진평왕대에서는 진평왕대 왜병이 침입하자 변경지대에서 봉화를 올렸다고 기록되었다.
- 50) 신라는 북진기에 소규모 성곽을 먼저 축조하여 기동로를 확보한 이후에 영역이 안정화되면서 대형성곽을 축조하였을 것이다(권순진, 앞의 논문, 2009, 39쪽). 한편 경기 남부의 거점지역 산성들은 인접해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는 것에 반해 임진강유역에 위치한 성곽 중에서 파주 오두산성 인근의 성동리고분군과 덕은리고분군을 제외하고 주변에서 고분군이 파악되지 않는다. 물론 성곽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강도의 이유도 있겠으나 화장을 하여 유골을 묻은것이 아니라면 이곳이 신라가 진출 시 안정적인 영역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가 복잡한 매장보다는 화장이 더 간편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연천 유엔군 화장시설이 참고가 될 듯하다(연천군경기문화재연구원, 『연천 유엔군 화장장시설 기록화 조사 및 활용연구』, 2017).

4. 통일전쟁기~나당전쟁기 신라 성곽의 변화

신라는 568년 한강 이북의 북한산주를 폐지하고, 남천주를 설치하며, 556년 설치한 비열홀주를 폐지하고 달홀주⁵¹⁾를 설치하였다. 주의 폐지가 곧 이 지역에 대한 신라의 지배권 喪失을 뜻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방어의 주요 거점을 후방으로 이전한 것은 이 무렵 고구려의 대대적인 반격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거나 적어도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⁵²⁾ 또한 남쪽에서도 백제의 잦은 침입과⁵³⁾ 가야의 모반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⁵⁴⁾도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유로 신라에 의해 점유되었던 임진강유역 일부 지역은 고구려의 반격으로 일시 함락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 대고구려 전투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51)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29년.

52) 비열홀주를 폐하고 달홀주를 설치한 이유를 이 지역에서 신라의 수세적 불리함을 들고 있다. 즉 함흥 일대는 고구려 국내성과 평양에 이르는 교통로가 발달되어 있어 고구려의 반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었다. 고구려군이 마식령을 넘어 안변을 차지하게 되면, 그 이북에 있는 신라군이 고립될 우려가 컸다(장창은, 「진흥왕대 신라의 북방진출과 대고구려 영역확방」, 『신라사학보』 24, 2004, 28~29쪽).

53)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7세기 초·중반에 백제도 지속적으로 신라 변경을 침입하였다. 이에 신라로서는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전투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병력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임진강방어선이 무너지면 대중국 노선인 한강유역도 안심할 수 없기에 남쪽보다 북쪽의 고구려 방어에 더 집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4)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23년 및 진지왕 2년.

〈표 2〉 7세기대 대고구려 전투

연 도	전투지역	공/방	승전국	전투결과	전거
603년(진평왕 25)	북한산성	고구려/신라	신라	고구려군 격퇴	신라본기4 고구려본기8
608년(진평왕 30)	북경	고구려/신라	고구려	신라인 8천여명 붙잡혀감	신라본기4 고구려본기8
608년(진평왕 30)	우명산성	고구려/신라	고구려	성이 함락됨	신라본기4 고구려본기8
629년(진평왕 51)	낭비성	신라/고구려	신라	성을 함락 후 5천여명 참살	신라본기4 고구려본기8
638년(선덕왕 7)	북변 칠중성	고구려/신라	신라	고구려군 격퇴	신라본기5 고구려본기8
642년(선덕왕 11)	고구려 남경	-	-	전투없이 종결	신라본기5 고구려본기8
655년(무열왕 2)	신라북경	고구려/신라	고구려	신라북경 33성 탈취	신라본기5
660년(무열왕 7)	칠중성	고구려/신라	고구려	신라군주 필부전사	신라본기5
661년(무열왕 8)	술천성/북한산성	고구려/신라	신라	신라수성	신라본기5

위의 〈표 2〉에서 보듯이 7세기에 들어 신라와 고구려 주 戰場은 북한산성(서울 아차산성), 칠중성(파주시 적성면), 우명산성(강원도 춘천) 등 임진강과 한강유역이다. 먼저 고구려는 603년 북한산성을 공격하였다가 실패하였으나, 608년에 우명산성을 공격하여 차지하였다. 604년 신라는 다시 한강 이남의 남천주를 폐지하고 한강 이북에 북한산주를 설치⁵⁵⁾하였다. 한강 이북지역으로 주치의 이동은 앞서 벌어진 북한산성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신라는 629년 현 포천으로 비정⁵⁶⁾되는 고구려 낭비성을

55)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26년.

56) 서영일, 「고구려 낭비성고」, 『사학지』 28, 1005 ; 박종서, 「고구려 낭비성 위치에

공격하여 함락하고, 이후 춘천지역을 회복한 다음, 637년에 우수주를 설치하였다. 낭비성 전투⁵⁷⁾의 승리와 함께 신라가 다시 한강 이북지역을 포함한 임진강 및 철원⁵⁸⁾지역까지 진출한 기록을 볼 때 이때부터 이 지역에 대한 신라의 적극적인 공격 및 방어작전을 실시함으로써 고구려군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구려는 낭비성 상실 이후 포천 방면에서 한강유역에 이르는 진출로가 차단되자 칠중성을 집중 공격하였다.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통한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칠중성을 지나야 한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남진 진출지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주교통로인 칠중성 방면 진출을 모색한 것으로 이해된다.

신라는 임진강유역에서 고구려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임진강 남안을 따라 성곽에 대한 신축과 수개축을 실시하여 황으로 방어선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북한산주가 재설치된 7세기 초·중반에 임진강유역의 신라 방어선이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신라가 수축하거나 새로 신축되어진 성곽으로 오두산성, 봉서산성, 칠중성, 대전리산성, 옥녀봉산성, 군자산성, 성동리산성, 철원지역 동주산성, 성산성⁵⁹⁾ 등이 있다. 이들 성곽은 임진강 강안과 그 배후에 위치한 구릉 정상부에 축조되었다. 주로 한북정맥을 관통하는 교통로와

대한 검토, 『국학연구』 17, 2010, 142~1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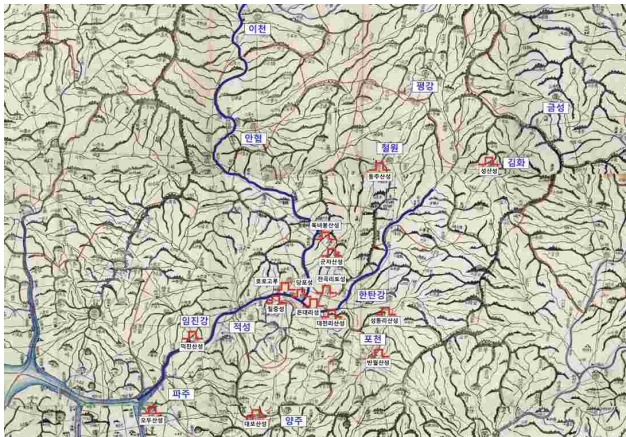
57)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51년 및 동 권20, 고구려본기8, 영류왕 12년.

58) 철원은 경기북부와 영서지방을 거쳐 소백산맥으로 진출하는 중부내륙 방면 교통로에 자리한 요충지일 뿐 아니라 동해안 일대로 진출하는 교두보이기도 하다. 철원 일대를 점유하지 못할 경우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공격로를 잃을 수 있으며, 도리어 중부내륙이나 동해안을 따라 고구려가 공격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철원 일대를 장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진평왕도 이런 철원 일대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이곳을 점령 후 고석정에 비를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김진한, 「철원 고석정 신라비와 신라의 철원 진출」, 『한국문화』 83, 2017).

59) 권순진, 앞의 논문, 2013.

주요목을 방어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크게 4개 축으로 구분되는데 파주-고양, 적성-양주, 연천-동두천, 철원-포천으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임진강유역 신라 방어체계의 핵심축이었다.⁶⁰⁾ 이 성곽들은 규모면에서 500~1000m 내외의 중대형 산성으로, 위치상 고구려군이 이곳을 함락해야만 중부지역 및 영서 내륙지역을 관통하여 남진할 수 있다. 또한 임진강을 우회하여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신라는 이 성곽들을 거점으로 삼아 이들 지역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임진강유역 전체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활을 건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자칫 임진강유역을 고구려에 빼앗기게 되면, 한강유역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곧바로 강원 영서지역에 대한 방어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한강유역이 고립되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의 교류가 단절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6〉 임진강유역 통일전쟁기 성곽분포(대동여지도)



60) 서영일, 앞의 논문, 2017:213~214.

한편 7세기 초·중반 임진강유역을 확보한 후 신라 성곽은 기능상의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능상의 변동이라 함은 초·축시 영토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던 성곽이 영역이 안정화되고 지방통치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 기능을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⁶¹⁾ 즉, 군현성으로의 본격적인 기능변화가 그것이다.⁶²⁾ 신라 군현성의 분포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한산주(한주) 영역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군현성의 배치는 방어에 효과적이다. 영토 확장과정을 고려했을 때 각각의 성은 새로운 진출을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신라가 한강이북과 임진강유역에 대한 영영지배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실시할 때 군현성 설치가 본격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군현성은 공격 혹은 방어를 위한 군사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군현성 분포는 당시 교통로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시기의 신라 성곽은 주요 교통로상에 분포하며 아울러 강에 임해서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특징적이다.⁶³⁾ 『삼국사기』지리지에 파주, 연천, 철원지역은 군 단위

61) 영역확대에 있어 새로운 개척지에 대해서는 먼저 군사적 요새화 내지는 안전을 기한 다음 점진적으로 행정구역을 정비해 나갔다. 568년(진흥왕 29)에 함경도 황초령과 마운령에 순수비를 세울 만큼 동북면에 진출하였지만, 군사적인 요새화나 안전조치를 취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순수비를 세운 그 자체와 순수비의 내용을 통해 신라의 개척지 영역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동북경은 원산만에서 두 순수비까지의 공간을 행정구획화 시키지 못한 것으로 신라의 영역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영역 개념의 인식에 있어서 행정구획화 시킨 곳을 행정지역(civil zone), 행정구획화 시키지 못한 군사주둔 공간은 군사지역(military zone)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군사지역이 안정을 기한 연후에 행정지역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방동인, 『한국의 국경획정 연구』, 일조각, 1997, 42쪽).

62) 성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도 북진기 성곽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함께 위계의 상징인 기와를 비롯하여 행정업무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벼루도 확인된다.

63) 박성현, 앞의 논문, 2001, 49~52쪽.

로 현성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임진강(남안)유역 신라 성곽 군현성 일람표(박성현, 2001을 참고 필자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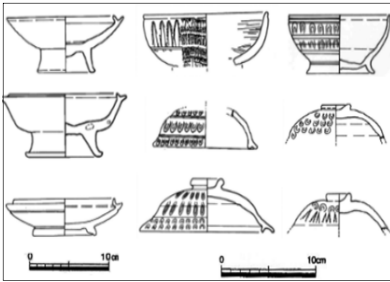
현지명	군	성곽	현	성곽
파주	교하군	오두산성	봉성현	봉서산성
			고봉현	고봉산성
양주	내소군	대모산성	파평현	금파리성지, 이잔미성(?)
			중성현	칠중성
포천	견성군	반월산성	사천현	대전리산성
			동음현	성동리산성
철원	철원군	동주산성	동량현	구철원지역(중어성?)
			공성현	군자산성
	부평군	성산성	광평현	평강(북한)

위의 <표 3>과 같이 임진강유역의 신라 영역이 안정화에 접어 든 시기에 신라 성곽은 이 일대를 다스리는 실효적 지비로서 군사행정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치소성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성 내부에서 출토 또는 수습된 유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포천 반월산성, 연천 호로고루성, 연천 대전리산성, 파주 오두산성 등 발굴조사에서 신라후기 양식 토기인 인화문토기와 대부완 등이⁶⁴⁾ 출토되고 있다(그림 7~10). 또한 신라 북진기 성곽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기와류가 다량 확인되는데, 선조문, 격자문(정격자문, 사격자문), 태선문 등 통일신라시대에 해당되는 기와류가 주를 이룬다(그림 11). 다만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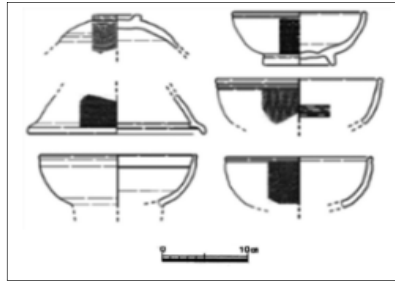
64) 인화문토기 II단계는 지금의 서울경기지역이 신라의 완전한 세력권 안에 들어가는 시기로 고배 형식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대부완이 출현하는 단계이다. 수적형문, 마제형문, 원호문 등의 단일문류의 인화문토기가 보이며, 종장연속기법 A기법의 점열문이 시문되고 있다(박성남, 「서울경기지역 성곽 및 고분 출토 신라 인화문토기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적으로 규모가 작은 성곽들은 통일 이후에 영역이 안정화되면서 기능이 상실되어 폐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나당전쟁기 및 발해와의 국경선이 확정되는 경덕왕대까지 이 일대는 말갈의 침입으로 인하여 영토가 후퇴와 북상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⁶⁵⁾ 이에 따라 필요에 의해 성곽이 운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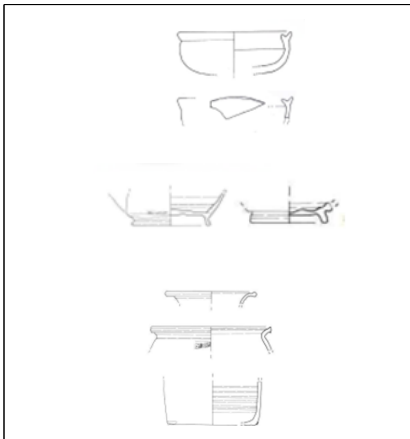
〈그림 7〉 포천 반월산성 출토 토기
(축척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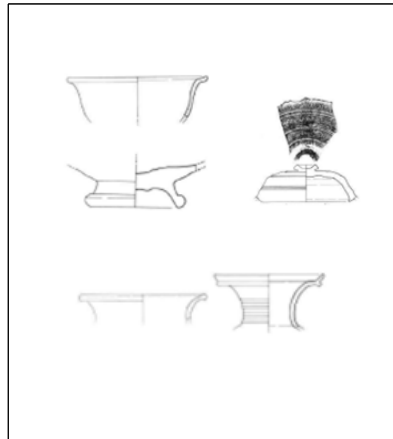
〈그림 8〉 연천 호로그루 출토 토기
(축척부동)



〈그림 9〉 오두산성 출토 토기
(축척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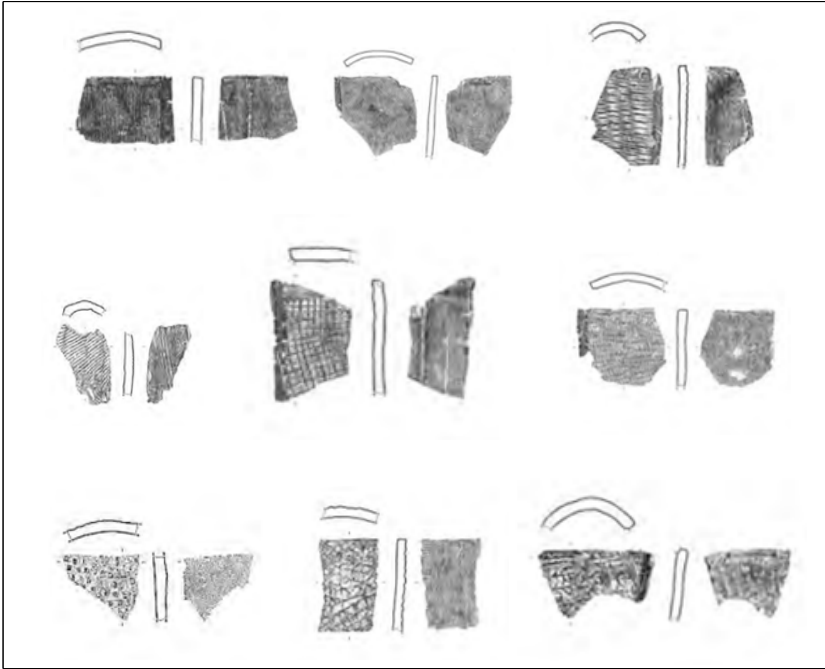


〈그림 10〉 오두산성 출토 토기
(축척부동)



65) 조이욱, 『통일신라의 북방진출연구』, 서경문화사, 2001, 237-239쪽.

〈그림 11〉 대전리산성 출토 기와(축척부동)



한편 임진강유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나당전쟁기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삼국통일 이후 임진강과 예성강 이북에 주둔하던 당군과의 전선이 형성된 곳도 임진강과 철원을 연하는 선에서 당의 남진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668년 고구려 멸망으로 삼국통일을 이룩한 신라는 당과의 일전을 치르게 되는데 임진강유역은 여전히 신라의 최전방 방어선이였다. 당은 평양 이남지역을 신라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백제와 고구려 고지에 각각 웅진도독부와 안동도호부를 두어 직접 지배하려 했다. 심지어 신라까지도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이에 670년(문무왕 10)부터 백제 고지를 신라 영토로 편입시키는 군사작전에 돌입하였으며, 고구려

부흥운동을 후원하면서 당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또한 적극적인 선제공격으로 671년 백제 옛 땅을 회복하는 한편, 당과의 전면전에 대비하여 방어력이 우수한 산성 축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672년 한산주에 주장성을 쌓고,⁶⁶⁾ 673년에는 서형산성과 북형산성을 증축하였으며, 국원성과 소문성, 이산성, 주양성, 주잠성, 만홍사산성, 골쟁현성 등 도성 주변과 각주의 전략적 요충지에 산성을 신축하거나 수축했다.⁶⁷⁾ 이 시기 당과의 전쟁을 위하여 구축한 신라 성곽은 기존의 성곽과는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형태로 유사시 피난성으로 기능할 수 있는 대규모 산성이다. 또한 675년 9월 당나라 설인귀의 보급부대를 천성⁶⁸⁾에서 격파하고, 이근행이 이끄는 20만 대군을 매소성⁶⁹⁾에서 물리침으로써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의 영토를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매소성의 위치에 대해 양주 대모산성⁷⁰⁾이라는 견해와 연천 대전리산성⁷¹⁾이라는 견해가 있다. 양주 대모산성은 규

6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2년.

67)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3년.

68)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5년. 현재의 임진강 하구 통일전망대가 위치한 오두산성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서는 서영교, 『나당전쟁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227~233쪽 참조.

69)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5년.

70)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537·559쪽;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266쪽; 박성현, 「양주 대모산성의 성과 역사적 위상」, 『양주대모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자료보고서』 양주시, 2012; 「양주 대모산성의 재조명」,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3;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기호문화재연구원,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보고서』, 2021~23; 한국고대학회, 『고대의 매소에서 현대의 양주까지-양주의 변천과 성격 재조명-』, 2023.

71) 민덕식, 「나당전쟁에 관한 고찰 -매소성 전투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40, 1989, 179~193쪽; 안국승, 「매소성 연구」, 『경기향토사학』 2, 1997, 273~280쪽; 이호영, 『신라삼국통합과 려제폐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1997, 255쪽; 서인한, 『나당전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9, 144~146쪽; 안국승, 「매소성의 위치 비정」, 『경기향토사학』 11, 2006; 이상훈, 「당의 군사전략을 통해 본 나당전쟁기의 매소성 전투」, 『신라문화』 29, 2007, 91쪽;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205쪽; 임용한, 「대당전쟁 시기 주요 격전지 연구」, 『대전리산성, 매소성인가』, 연천군경기문화재

모가 협소하고, 배후에 대전리산성과 칠중성 등 신라산성들이 위치하여 보급로가 차단되거나 배후가 공격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대전리산성은 북쪽에서 오는 적을 방어하기 유리한 곳이나 남쪽으로 진격을 위한 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양주 대모산성보다 협소하여 20만군이 주둔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따라서 칠중성에서 막힌 당군이 새로운 공격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곡쪽으로 우회하여 3번국도를 따라 남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매소성의 위치는 전곡부근 한탄강 이북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 현 전곡읍 남쪽 일대에 일명 ‘가사평’이라는 넓은 들판이 있는데, 규모로 볼 때 당군 20만이 주둔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 전곡리토성⁷²⁾이 위치하고 있는데, 매소성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일대를 매소성으로 보는 근거로 지형적 특징을 들 수 있다. 즉, 현재의 전곡읍내를 중심으로 동쪽과 남쪽은 한탄강에 의해 천연의 해자를 형성하며, 서쪽과 북쪽은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히 삼면이 험지에 해당하는 거대한 성곽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기병을 상당수 보유한 대규모 당군이 임진강을 도하하기 전에 주둔하기 용이한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만 대군이 주둔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곳이다. 이밖에 전곡읍 서쪽에 고구려성인 은대리성이 있는데 이곳도 당군이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지형적 잇점에 비해 20만 대군에 대한 보급 문제가 대두된다. 이는 당군이 육로뿐만 아니라 수로를 이용한 수륙

단, 2013, 127~131쪽 : 권창혁, 「나당전쟁 시기 매소성 전투와 신라의 북방전선, 『한국고대사연구』 95, 2019, 312~316쪽.

72)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6; 경기문화재단·한양대학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0.

병진책을 활용하였다는 기록을 볼 때⁷³⁾ 보급은 육로와 임진강 수로 두 방법 모두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수운과 관련하여 호로그루성에 인접한 고랑포 포구가 주목된다. 일제강점기의 기록에 의하면 서해 조수의 영향에 의해 임진강 수로는 호로그루성이 위치한 고랑포까지 바다에서 들어오는 대형 선박들의 소강 종점일 뿐만 아니라 상류 쪽을 왕래하는 소형선들의 기항지 중에서도 핵심지역으로, 임진강 수운의 거점을 이루고 있었다.⁷⁴⁾ 이러한 자료를 고려할 때 당군이 고랑포 포구를 활용하여 보급물품을 하역한 뒤 임진강 이북 강안을 따라 전곡 일대까지 운송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⁷⁵⁾ 『삼국사기』의 매소성 전

73) 김병희, 『신라-당 전쟁사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03~127쪽.

74) 조선총독부의 조사 기록에 따르면 임진강 본류에서 수운이 가능한 지역은 120km 인데, 3구역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제1구역은 안협에서 전곡까지로, 수심은 일제강점기를 기준으로 보면 2~3m였다. 이 구역에는 40여 개의 여울이 있으며, 암초가 곳곳에 있어 수위가 높을 때 곡물 50~70석을 운반하는 소형선이 통행하였다. 제2구역은 전곡에서 고랑포까지로, 수심은 2.5~4.5m였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유량이 많아지나 이 구역에서도 호로탄이나 술탄 등 여러 여울이 있어서 적재량은 최대 100석을 넘지 못하였다. 제1·2구역에는 많은 여울이 발달하여 통행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여울의 일부 퇴적물을 파내는 이른바 '배골파기' 작업이 행해졌으며, 골을 통하여 배를 견인하는 전문 종사자들이 있었고, 배는 평저선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제3구역은 고랑포에서 하구까지로, 이번 수심은 대체로 5~7m였다. 조수의 영향권에 속하고 하폭이 상대적으로 넓을 뿐 아니라 하도의 경사도 완만하여 수위가 낮을 경우에도 소강이 용이하였다. 결빙기와 홍수기 이외에는 바다로 외양 항해를 할 수 있었고, 적재량이 최대 400석 까지도 가능하였다고 한다(이준선, 「적성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그 배경」, 『문화역사지리』 16-3, 2004 ; 「칠중성과 고랑포의 역사지리적 고찰」, 『애산학보』 32, 2005).

75) 물론 고랑포에서 작은 선박을 이용하여 전곡까지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상류로 올라가면서 하천 폭이 좁아지는 관계로 신라군의 기습 가능성이 있어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김병희는 고랑포구보다 더 하류쪽에 위치한 금파리성지에 주목하여 이곳을 신라-당 전쟁 당시 당군의 병력과 물자를 하역하는 장소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김병희, 앞의 논문, 2020, 114~115쪽). 금파리성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보급 물품의 신속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단 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금파리성지는 매소성까지 직선거리 약 23km이나 고랑포에서는 약 19km 정도이다. 또한 임진강 남안을 배후로 두고 이동하기에는 전시상황에서 신라군의 기

투 기록이 소략⁷⁶⁾하여 전투 양상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천성 전투에서 보듯이 당군이 보급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서 패퇴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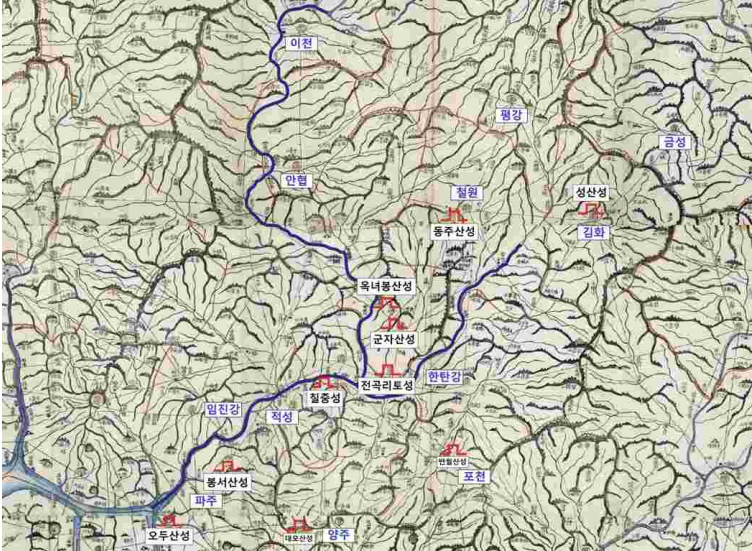
이렇듯 나당전쟁기 임진강유역에 인접한 오두산성, 칠중성, 대전리산성 등이 주요 전투지역으로 등장하는데, 모두 임진강 연안에 분포하는 성곽들이다. 따라서 임진강 연안에 위치한 성곽들은 수상교통로 통제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임진강 연안에 위치한 오두산성, 덕진산성,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전곡리토성은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발생한 전투 양상과 점령국가에 따라 역할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라의 입장에서는 대당전쟁기 임진강 수로를 통제함과 동시에 보급거점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임진강유역 신라 성곽의 변천 과정과 기능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7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5년 9월 29일 “二十九日, 李謹行率兵二十萬, 屯買肖城. 我軍擊走之, 得戰馬 三萬三百八十匹, 其餘兵仗稱是”.

〈그림 13〉 임진강유역 나당전쟁기 성곽 분포(대동여지도)



〈표 4〉 임진강 유역 신라 성곽의 변천

단계/기간	성곽	입지/규모	유물	기능
신라 북진기/ 6세기 중후반~ 7세기 초	감악산보루, 수철성, 아미성, 초성리산성, 고소성, 주원리산성, 할미산성, 내대리성지, 어음성	해발 100~600m 내외/둘레 300m 내외	6세기 중후반 신라토기 일부성은 기와 출토	- 戰鬪前哨(Combat Outpost) 개념의 순수 군사시설 - 군사작전 지역에서의 거점 - 부대이동 감시, - 제한된 고착 및 자연작전, 보급로 확보 - 통신(烽燧)
	郡城 오두산성, 대모산성, 반월산성, 동주산성, 성산성	해발 100~300m/ 둘레 1Km 내외	토기, 기와 벼루 등	縣城 봉서산성, 고평산성, 금파리성지, 이잔미성, 칠중성, 대전리산성, 군자산성, 성동리산성
통일 전쟁기 (군현성) 7세기 중후반 ~ 나당 전쟁기 / 7세기 후반 이후	오두산성, 봉서산성, 덕진산성, 호로고루, 칠중성, 당포성, 대전리산성, 은대리성, 전곡리토성, 반월산성 동주산성, 성산성	해발 100m 내외/둘레 1km 내외	토기, 기와	- 군현성 유지 - 대당 방어작전 - 내륙 수로 및 교통로 인접 - 병참기지

5. 맺음말

6세기 중반 이후부터 임진강유역은 신라와 고구려의 영토확장 전쟁이 빈번하였으며, 이후 신라와 당의 전쟁에서도 주무대가 된 지역이다.

6세기 중반 임진강 이북으로 진출한 신라는 고구려 성곽에 대응되는 지점에 성을 쌓고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본고에서는 이것을 3단계로 나누어 성곽의 변천 과정을 검토하였다.

먼저 당시 초축된 성은 임진강과 한탄강을 연하는 횡적 방어 선상에 있는 감악산보루, 수철성, 초성리산성, 고소성, 주원리산성, 한탄강 상류에 위치한 철원지역 할미산성, 내대리성지, 어음성 등이다. 이 성들은 6세기 중반 이후 신라유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와가 출토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성곽의 규모도 소형이며, 입보농성을 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점령지의 안정적인 지배보다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순수 전투 목적을 가지고 축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두산성, 칠중성, 옥녀봉산성, 군자산성, 대전리산성, 성동리산성, 동주산성, 성산성 등 임진강유역 중대형 산성들은 임진강유역이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에 신축 및 증개축되어 고구려, 당과의 전투에 활용되었다. 이러한 성들은 지방통치의 거점인 군현성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이외에 오두산성을 비롯하여 덕진산성, 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 등은 임진강 연안에 연접하여 있어 대고구려 및 나당전쟁시 임진

강 수로를 통제함과 동시에 방어기능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은 3년간의 지리한 전쟁이었으나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될까지 2년 정도가 한반도 중부인 현 임진강 연안과 강원도 지역에서 고지쟁탈전이 주를 이룬 局地戰이었다. 이는 1,400년 전 삼국시대의 전투 양상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향후 임진강유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성곽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시기별 특징과 성격이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사료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2. 저서

-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방동인, 『한국의 국경획정 연구』, 일조각, 1997.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연구』, 학연문화사, 1998.
서영교, 『나당전쟁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이호영, 『신라삼국통합과 려·제패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1997.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국역편』, 을유문화사, 1977.
서인한, 『나당전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9.
조이옥, “통일신라의 북방진출연구”, 서경문화사, 2001.

3. 학술논문

- 권순진, “임진강유역 고구려성의 성격 재고 -호로고루·당포성·은대리성을 중심으로-”, 『군사』 83(2012) DOI : 10.29212/mh.2012..83.163
권순진, “철원지역 성곽의 특징과 성격”, 『인문과학연구』 75(2022) DOI : 10.33252/sih.2022.12.75.161
권순진, “철원지역 신라산성의 성격”, 『군사연구』 제135집(2013) DOI : 10.17934/jmhs..135.201306.307
권순진, “경기지역 신라北進期城郭’에 관한 일고찰”, 『신라사학보』9(2009)
권창혁, 「나당전쟁 시기 매소성 전투와 신라의 북방전선」, 『한국고대사연구』 95, 2019.
김길식, “6~7세기 경기북부지역 신라 성곽의 철기 수급체계”, 『백제문화』 제 54집(2016) UCI I410-ECN-0102-2016-910-000688368

- 김덕원, “칠중성의 영유권 변천과 전략적 역할”, 『한국고대사탐구』 33(2019)
DOI : 10.35160/sjekh.2019.12.33.333
- 김진한, “철원 고석정 신라비와 신라의 철원 진출”, 『한국문화』 83(2017) DOI
: 10.22943/han.2018..83.005
- 김호준, “파주 오두산성에 대한 백제 관미성설 비판”, 『한국성곽학보』 제19집
(2011)
- 민덕식, 「나· 당전쟁에 관한 고찰 - 買肖城(매소성) 전투를 중심으로」, 『사학연
구』 40, 1989.
- 박성현, “6~8세기 신라 한주 「군현성」과 성격”, 『한국사론』 47(2002)
- 박종서, 「고구려 낭비성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제17집, 2010.
- 백종오, “임진강·한탄강유역 고대 관방체계와 하천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25권 2호(2022)
- 서영일, “산성 분포로 본 신라의 한강유역 방어체계”, 『고고학』 9권 1호(2010)
UCI : G704-002037.2010.9.1.004
- 서영일,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덕진산성”, 『백제문화』 55(2017)
DOI : 10.35300/bjclab.56.0.201702.199
- 안국승, 「매초성 연구」, 『경기향토사학』2, 1997,
- 안성현, “연천 대전리산성 성격 연구”, 『문물연구』, vol 38(2018)
- 유재춘, “한국 중세 성곽의 성벽 설치 방어시설물 연구 -고려시대 성라, 성두,
차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
62집(2019)
DOI : 10.33252/sih.2019.9.62.189
- 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2022) DOI : 10.35160/sjekh.2022.08.41.45
- 이도학, “신라의 북진경략에 관한 신고찰”, 『경주사학』, 제6집(1987)
- 장창은, “진흥왕대 신라의 북방진출과 대고구려 영역향방”, 『신라사학보』
24,(2004) UCI : G704-002006.2012..24.009
- 전덕재,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향토서울』, 제73호(2009) DOI
: 10.22827/seoul.2009..73.003
- 차재동, “철원 동주산성에 대한 고찰”, 『강원인문논총』 제15집,(2006)

홍보식, “한강유역 신라 석실묘의 수용가 전개”, 『기전고고』제5호(2005)

4. 학위논문

김병희, ‘신라-당 전쟁사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20)

김진영, “경기지역 신라고분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20)

박성현, “신라 ‘군현성’과 그 성격 -6~8세기 한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박성현, “신라의 거점성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0)

서승완, “파주 덕진산성의 축성법과 점유세력의 변화”,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7)

이상현, “한주 신라성의 고고학적 특징”,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7)

윤일영, “관미성 위치고”, 국민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0.

5. 보고서

가디언문화유산연구원, 『고양 고봉산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2022.

가디언문화유산연구원, 『파주 오두산성 학술발굴조사 용역 약식보고서』, 2022.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2001.

경기도박물관, 『아미성·수철성 -정밀학술조사보고서-』, 2008.

경기도박물관, 『포천 성동리 마을유적』, 1998.

경기문화재단연구원·연천군, 『연천 대전리산성 I - 시·발굴조사 보고서-』, 2015,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의 성곽과 봉수』, 2019,

경강문화재단연구원, 『파주 칠중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 2022.

고려문화재단연구원·연천군, 『연천 대전리산성 II』, 2016.

국립문화재단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강원도편-』, 2000.

국립문화재단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경기도편-』, 2000.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단연구소, 『파주 칠중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 2001.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단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종합 보고서』 I · II 2004.

단국대학교 사학과,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고구려성곽(3개소)발굴 및 정밀지표조사 약보고」, 2010.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경기도 파주군 군사유적 지표조사 보고서』1994.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오두산성 동벽 유구조사』, 2007.
- 육군사관학교 국방유적연구실철원군, 『철원 동주산성 지표조사보고서』, 2005.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강원도 철원군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96.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경기도 연천군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95.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경기도 포천군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97.
- 육군사관학교·철원군, 『철원 성산성 지표조사보고서』, 2000.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2006.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파주 덕진산성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보고서』, 2004.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경기도박물관, 『연천 당포성-시굴조사보고서-』, 2008.
- 이재·강성문·권순진, 『철원의 성곽과 봉수』, 2006.
- 중부고고학연구소, 『파주 덕진산성-1·2차 학술발굴조사-』, 2014.
- 파주사·역사문화재연구원, 「파주 덕진산성의 과거·현재·미래」, 파주 덕진산성 학술대회(2021)
- 파주사·한백문화재연구원, 『파주 칠중성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학술대회(2023)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 호로그루Ⅲ-제2차 발굴조사보고서-』, 2007.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 호로그루Ⅳ -3·4차 발굴조사보고서』, 2015.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 호로그루-정밀지표조사보고서-』, 1999.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 호로그루-제1차 발굴조사보고서-』, 2002.
- 한양대학교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 한양대학교박물관·문화인류학과,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 한울문화재연구원, 『연천 호로그루 동벽 남측 치성-연천 호로그루 동벽 남측 치성 발굴조사-』, 2018.
- 황용훈·신복순·김희찬, 『오두산성 I』, 경희대학교 고고·미술사연구소, 1992.
-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연천군,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 한백문화재연구원, 『파주 오두산성 정밀지표조사』, 2006.

6. 기타

인하대학교박물관, 『임진강유역의 고대사회』, 인하대학교 박물관 제3회 학술대회, 2002.

「양주 대모산성의 성격과 역사적 위상」, 『양주 대모산성의 재조명』.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3

연천군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연천 유엔군 화장장시설 기록화 조사 및 활용연구』, 2017.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의 성곽』, 기전문화 예술총서 13, 2003.

“임진강유역 삼국의 관방체계”, 『임진강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경기문화재단연구원·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2018)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http://dtims.dtaq.re.kr:8070/search/main/index.do#>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ks.ac.kr)

<Abstract>

A study on chang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illa fortress in the Imjin River basin

Kwon, Soon-jin

Silla dynasty, which advanced north of the Imjin River in the mid-6th century, built a castle and a defense system at a point corresponding to the Goguryeo castle. We examined the process of the castle's transformation in three stages. First, the castles built at that time included Gamaksan Fortress, Sucheol Fortress, Choseongrisan Fortress, Gosong Fortress, and Juwonrisan Fortress on the horizontal defense line connecting the Imjin River and Hantan River, and Halmisan Fortress, Naedari Fortress, and Eoeum Fortress in the Cheorwon area located in the upper reaches of the Hantan River. These castles are mainly composed of Silla relics from the mid-6th century, and considering that no roof tiles have been excavated, they appear to have been built intensively over a short period of time. The size of the fortress is small, and it is limited for staging a sit-in.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fortifications were built purely for combat purposes centered on the base area rather than for stable control of the occupied area. In addition, medium to large fortresses in the Imjin River basin, such as Odusan Fortress, Chiljung Fortress, Oknyebongsan Fortress, Gunjasan Fortress, Daejeonrisan Fortress, Seongdongrisan Fortress, Banwolsan Fortress, Dongjusan Fortress, and Seongsan Fortress, were newly built, expanded, and rebuilt around the time the Imjin River basin entered a relatively stable period, allowing Goguryeo. It was used in the battle against the Tang. In addition, these castles simultaneously performed the function of county fortresses, the bases of local governance. In addition, Odusan

Fortress, Deokjinsan Fortress, Horogoru, Dangpo Fortress, and Eundaeri Fortress are adjacent to the coast of the Imjin River, so they are thought to have controlled the Imjin River waterway during the Great Goryeo and Silla–Tang wars and at the same time served as defensive functions and supply bases.

Keywords: imjin river, Advancing–north period, combat outpost, the fortress of the gun-hyun(郡縣城), the governing place the fortress(治所城), Jeongokri Fortress